론조 볼 트리플 더블, 루키 시즌 잊고 재능 발산?

론조 볼(사진)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루키 시즌의 부침을 이겨내고 NBA 무대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모양새다.

17일 농구전문매체 '루키' 에 따르면 론조 볼은 15일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진기록도 세웠다. 이날 론조 볼은 16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하며 르브론 제임스(24점 12리바운드 11어시스트)와 함께 동반 트리플-더블을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 경기에서 같은 팀에서 소속된 두 명의 선수가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매우 드문 사건이다. 지난 55년 동안 다섯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진풍경이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르브론과의 호흡이 좋다.

올시즌 론조 볼은 조금은 독특한 롤을 소화하고 있다. 포인트가드이지만 스크리너 역할을 하는 중이다. 스크린 이후 미드레인지 구역으로 침투하고 이후 받은 볼을 동료들에게 뿌리며 레이커스 공격을 돕고 있다. 론조 볼이 스크린을 설 때 드리블러는 르브론인 경우가 많다. 르브론-론조 볼로부터 파생되는 공격이 레이커스에 큰 도움을 주는 중이다.

올시즌 론조 볼은 위력적인 수비수이기도 하다. 195cm의 좋은 사이즈와 탄탄한 사이드스텝으로 상대 가드들을 괴롭히고 있다. 론조 볼이 공수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레이커스도 꾸준히 승리를 챙기고 있다. 레이커스는 이날 현재 11월 이후 연패가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 상승세가 대단하다.

물론 아직 아쉬운 부분도 많다. 올시즌 론조 볼은 야투율이 39.2%, 3점슛 성공률이 30.8%로 슈팅 효율이 여전히 평균 이하다. 3점슛은 생산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상대에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다. 2순위 지명자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슈팅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론조 볼은 당분간 계속 3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경기력 자체도 좋거니와 베테랑 가드 라존 론조가 아직 손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론조 볼이 루키 시즌의 부침을 이겨내고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 중 론조 볼을 격려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오른쪽)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2에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올해 세계 골프 '뉴스메이커' 1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의 부활이 2018년 세계 골프계에서 최고의 뜨거운 뉴스로 꼽혔다.

18일 '디지털타임스' 에 따르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 채널과 골프 다이제스트는 타이거 우즈를 '올해의 뉴스 메이커' 1위로 선정했다.

우즈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주최한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복귀전을 치를 때만 해도 세계 랭킹은 1199위였다. 그러나 올 시즌 들어 대회를 거듭할수록 전성기 시절 기량을 찾아가더니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에서 단독 2위에 올랐고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5년 1개월 만에 감격적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준우승도 두 차례나 기록하는 등 우즈는 올 시즌 PGA 투어 18개 대회에 출전해 톱 10에 7차례나 진입했다. 덕분에 우즈는 올해 초 656위이던 세계랭킹을 현재 13위까지 끌어올려 톱1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2018년 유명인 보유 자산 순위에 따르면 우즈는 8억 달러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지난해 7위에서 2계단 떨어졌지만 지난해보다 자산이 5,000만 달러가량 늘었다. 우즈의 자산이 이처럼 는 것은 전성기의 기량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즈는 골프 방송 채널 디스커버리와 새로 스폰서 계약을 하는 등 그의 상품가치는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우즈는 올해 9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3년 8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5년 1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PGA 투어 80승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는 지난해 12월 말 세계 랭킹 656위에서 올해는 현재 13위까지 세계 랭킹을 끌어올렸다.

한편 뉴스메이커 2위로 골프 채널은 필 미컬슨(미국)을, 골프 다이제스트는 브룩스 켑카(미국)를 지목했다.